

「한국개혁신학」 40 (2013): 83-113.

개혁주의 신조의 현대적 의의와 적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중심으로

장호광
(안양신대원, 조직신학)

〈한글초록〉

본 연구는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중에서도 성경관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조의 현대적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그런 만큼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일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전통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참된 장로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된 장로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 근거를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앙고백서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잃어버린 역사적 장로교회의 전통과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혁주의에 있어서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성경관이 차지하는 의미를 서론에서 드러내었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장에서는 개혁주의 신조의 의의와 현실적 적용의 발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권위성’과

‘영감성’, ‘무오성’, 마지막으로 ‘정경성과 해석’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개혁주의 성경관의 주요 특징인 성경의 권위, 영감, 무오성과 정경성 그리고 성경의 해석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유기적 혹은 동심원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보았다. 왜냐하면 성경의 바른 이해는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신조는 날마다 시대마다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끊임없는 현실적 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구약과 신약시대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 이해를 신앙고백과 함께 폭 넓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회가 현사회의 급변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앞섬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한글 주제어**: 신앙고백서, 성경, 권위, 영감, 정경성, 무오성,

투고일: 2013. 10. 15. 수정투고일: 2013. 11. 12. 게재확정일: 2013. 11. 15.

I. 도입하는 글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비리를 지적하고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교회는 교회 자체의 부패와 신학적 안목 부족으로 바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의 도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변혁시키는 변혁 주체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회가 교회를 개혁하려는 통탄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교회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

졌지만, 무엇보다 신앙고백과 신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의 혼탁함 내지는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 받은 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 신조를 정립하고, 이것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 부지런히 교육함으로 교회 자체의 정체성을 지켜 왔는데, 오늘날에 와서 신조는 ‘스콜라주의적’인 것으로 버려야 하며 오직 성경 자체만 배워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영적인 은사를 충만히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신조의 자리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¹

무엇보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을 신조로 삼는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성도를 위해 작성되었고, 대요리문답은 강단에서의 교리교육을 위해서, 소요리문답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이 신조 안에는 기독교의 기초 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언약, 유아세례와 같은 교리, 즉 개혁신주의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교리를 정리한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다. 장로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신조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전한 신앙관을 배우고 익혀 이 땅에서의 믿음과 삶을 굳건히 정립시켜 나갈 수 있다.

신조는 진리의 명료한 요약이며, 비성경적 교훈들과 이단사상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통신학의 시금석이다. 따라서 신앙고백은 이어져 오는 세대로 하여금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해주며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길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때문에 바른 개혁 신앙을 이어가려는 개혁교회로서는 무엇보다 신조

¹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서구의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시대에서도 발견된다. 즉, 합리주의에 있어서 신앙고백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가치만을 지닐 뿐이었다. 또한 경건주의에서의 신앙고백은 개개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의 영역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신앙고백은 영적 체험을 통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고백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신앙고백서에서 진술 되는 진리는 공동체성에서가 아니라 개별성에서 인식되고, 그렇게 인식된 진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체험되었다. Paul Jacob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im Grundzüge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59), 17.

의 자리를 바르게 회복하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지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², 그 중에서도 성경관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조의 중요성과 의의를 현실적 적용과 연계시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려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성경관 역시 함께 연관시켜 살펴보는 것이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체 개혁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성경관을 칼빈의 성경관과 비교하며 그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개혁주의에 있어서 신앙고백서의 중요성

왜 개혁주의에 있어서 신앙고백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는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수세기 동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라 답할 수 있다.³ 무엇보다 종교개혁가이며 개혁주의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고백서나 교리교육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과 교회에서 신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등은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과 헌신의 의미가 깊이 배어있는 표현이다. 이처럼 기독교는 신조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제시했다.⁴

²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erminster Confession of Faith)를 WCF 약어로 표기함.

³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대변하는 신앙고백서로 제네바 요리문답(1541), 프랑스 갈리칸 신앙고백(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 벨직 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제2 헬베틱(스위스) 신앙고백서(1566), 도르트 신경(161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를 들 수 있다.

⁴ 박해경, 『신학의 두 가동, 성경과 신조』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105.

그러기에 개혁신교회는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들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많은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반대립적으로 보거나 또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이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정신을 왜곡한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되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에는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어왔으며, 구원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귀중하게 보존되어 왔다. 개혁신주의에 있어서 신앙고백서의 그런 중요성을 기능적 차원에서 덧붙인다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들 수 있다.

첫째, ‘자기 규정적’ 기능이다. 신앙고백서의 본래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자기규정이다. 신자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이 가르쳐지는지는 신앙고백서 안에서 인지된다. 이와 더불어 신앙고백의 행위와 동시에 자기규정으로 발전된다. 왜냐하면, 신자는 신앙고백의 형식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identity)과 책임성(responsibility)을 발견하기 때문이다.⁵

둘째, ‘공동체’ 기능이다. 신앙고백은 항상 공동체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신조는 상징, 즉 인식과 확증의 상징으로서 특징지어 진다. 예를 들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고백의 상징성을 지닌 신조 중의 하나는 물고기였다.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한

⁵ Hans Schwarz, "Glaubensbekenntnis,"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13, ed., Gerhard Müller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4), 437.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신앙고백들의 형성을 위한 동기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났다.⁶

셋째, '한계 설정'의 기능이다. 신앙고백은 공동체 기능과 더불어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로부터 구분 짓는 한계설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기독교의 신앙고백이 공적으로 승인되고 인정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세속적 공동체로부터 한계지어진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한계설정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지기도 했었다. 그 외에도 신앙고백은 믿음의 곡해 혹은 비신앙적 사상으로부터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방어적이고 논쟁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⁷

넷째, '찬양적' 기능이다. 신앙고백의 찬양적 기능은 모든 신앙고백들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신앙고백들이 예배에서 사용되는 것(예를 들어, 사도신경)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신앙고백의 찬양적 기능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신앙고백은 결코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신앙고백의 가장 오래되고 영구적인 찬양적 기능 중의 하나는 세례의식에서 발견된다. 세례자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고백을 진술한 후, 세례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서의 신앙고백은 성만찬식에서도 행해진다.⁸

다섯 번째, '교리 문답적' 기능이다. 신앙고백은 말씀의 축약이고(*verbum abbreviatum*), 변론적 방법 안에서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부각되기 때문에 신앙고백이 교리 문답적 가르침의 기초적 구성요소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그리고 온갖 거짓된 진리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⁶ Schwarz, "Glaubensbekenntnis", 437-38.

⁷ Schwarz, "Glaubensbekenntnis", 438-39.

⁸ Schwarz, "Glaubensbekenntnis", 439.

지를 알아야만 한다.⁹

이렇듯,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응답으로 사용되어 교회의 중심교리가 되며 동시에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권위 있는 신앙 조항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조는 개혁교회의 교리와 실재의 전 분야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행위와 실천의 기본이 되었다.

2. 성경과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신앙고백의 내용은 계시된 성경의 내용과 일치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잘 요약되어야 하고, 성경의 진리가 은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슐링크(F. Schlink)에 의하면, “신앙고백은 성경의 종합과 같다”고 했을 정도로 신조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신조가 성경에 바탕을 두지만, 그렇다고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든가 무오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조의 권위는 상대적이며 제한적이고, 기독교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표준인 성경과는 항상 차위적인 것으로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는 성경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 역할과 우리의 신앙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존재하는 차위적인 의의를 지니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경 위에 세우게 하도록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할 뿐이다.¹⁰ 이에 대해 필립 샤프(Phillip Shaff)가 잘 정의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⁹ Schwarz, "Glaubensbekenntnis", 440.

¹⁰ Jacob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im Grundzügen*, 14-15.

대답이다. 성경은 *norma normans*요, 신앙고백은 *norma normata*이다. 성경은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이요, 신앙고백은 교리의 규범(*regula doctrinae*)이다. 성경은 신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앙고백은 단지 교회적이고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¹¹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하고 절대적이거나 신앙고백으로서 신조는 교회적이며 상대적 권위를 가질 뿐이다. 사실상 신조는 성경의 도리를 요약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교리와 행위의 잘못된 것을 가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구별은 모든 것을 성경에서 근원을 찾는 칼빈의 사상과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고백서는 각 나라와 각처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된 후에 교회의 공식적인 규범으로 통과를 거친 것들이다. 이는 성경에서 가르친 계시의 정신이 놀라우리만큼 그대로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앙고백이란 보통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수락이며 또한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신앙의 고백과 이 신앙의 고백을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보아서 바른 신앙의 고백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본 논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이어지는 장에서 개혁주의 신조의 의의와 현실적 적용의 발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¹¹ P. S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I: The History of Creed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1. 이 외에도 다니엘 밀리오리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신조와 신앙고백문은 성경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대로 성경 증언에 종속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 교정 가능하다. 교회적 성경 읽기는 교회의 신앙고백에 의해 교훈을 받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새로운 해석이 열려 있다.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신앙고백문을 이해하자면, 이 권위는 상대적, 잠정적인 권위일 뿐이며 성경 증언이라는 규범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진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18-19.

에서 드러난 성경관을 ‘권위성’과 ‘영감성’, ‘무오성’, 마지막으로 ‘정경성과 해석’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

WCF는 칼빈주의 정통신학의 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잘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신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문서로 영미계통 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의 장로교 역사를 통하여서도 수용되어 사용되어 왔다.¹²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관을 첫 번째 조항으로 삼았다.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성은 “개혁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들의 신조에 성경관을 첫 조항으로 삼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¹³ 이호우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다양한 교리적 주제 중에 성경관을 첫 번째 조항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첫째, 당시의 신학적 경향을 들 수 있다. 성경의 권위가 로마 가톨릭과 합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등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외에 종교 개혁시기의 초기 신앙고백서들이 성경관을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가령, 제네바(Geneva) 신앙고백서(1536), 헬베틱(Helvetic) 신앙고백서(1566), 일치신조(Formula of Concord, 1576), 그리고 아이리쉬(Irish) 신앙고백서(1615) 등이다. 이런 신조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강력히 주창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고백적 강조점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 준다.¹⁴ 이근삼 박사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은 곧 장로

¹² 이형기, 『세계개혁신교회들의 신앙고백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299-300.

¹³ 이호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본 개혁신주의 성경관 고찰”, 『역사신학논총』 16 (2008): 78.

¹⁴ 이호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본 개혁신주의 성경관 고찰”, 78-80.

교의 성경관이며 동시에 개혁주의 성경관임을 분명히 한다.¹⁵

이뿐만 아니라, 조병수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관을 초두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들의 교리 체계를 위한 기초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¹⁶

이 신앙고백서가 성경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교황 혹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명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당시 신학적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측면 또한 보여 준다. 결국 ‘오직 성경’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황제도, 교회회의,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같은 교회역사의 부산물보다 성경이 더 우선임을 보여준다.

1. 성경의 권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위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관한 교리는 늘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특별히 근대에 들어와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과 함께 발전한 성경 비평학의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가 간과 또는 축소되면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온 성경의 권위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¹⁵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153. 김영재 박사 역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초두에 성경론을 위치지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이 예외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본 신앙고백서가 그 점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성경에 관하여 신앙고백서의 서두인 제 1장에서 10개항에 걸쳐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얻는다는 것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된다는 견해를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하게 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청교도의 신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본다.”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171.

¹⁶ 조병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박윤선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 보수주의의 뿌리』,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편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5), 35-37.

백서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권위를 살펴보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사료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의 권위는 무엇보다 성경의 저자권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¹⁷ 이호우 박사는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석, 정리했다. 첫째,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66권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WCF, 1항 2절). 둘째,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다 나올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WCF, 1항 3절). 셋째, 성경이 권위를 갖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넷째,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바로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오직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모든 기독교자의 신앙과 행위 규범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WCF, 1항 2절).¹⁸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이호우 박사가 성경의 권위를 단순히 성경의 저자권에서 머물지 않고 영감성과 무오성, 정경성 등을 동심원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의 주요 특징을 이루는 권위성과 영감성, 무오성, 정경성과 해석의 원리가 유기적 관계로 묶여져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장에 이어 계속 전개될 성경관의 개개 주제들은 구분될 뿐이지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¹⁷ 칼빈에 있어서도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의 신적 기원에 있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결정이나 인간의 논증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마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성경을 하늘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그 성경은 신자들에게서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 7. 1. (이후 *Institutes*로 인용함).

¹⁸ 이호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본 개혁신주의 성경관 고찰”, 89-92.

그런데 심재승 박사는 그런 성경관의 주요 특징들의 유기적 관계성이 간과된 채, 권위성을 동반한 교리적 주장, 즉 무오성에 치중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무오성에 대한 신앙고백에 치중하는 면에서 그것은 첫째로, 성경 교리를 폭넓게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들, 즉 유기적 영감의 본질과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이해와 언어로 표현된 적응성(accommodation), 계시역사와 무오성과의 관계, 성경본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리고 정경과 번역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중요한 요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주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그러한 신조적인 경향은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특별히 성경의 해석과 단절되고, 형식화된 교리가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남기게 되었다.¹⁹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며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전파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어떻게 정립되며, 그 특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정확무오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은 권위적이며 형식적인 교리를 벗어나 개혁주의 성경관의 통섭적(通涉的)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나아가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성경의 전체 내용과 목적을 밝혀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비롯해 개혁주의의 성경관은 성령의 영감에 근거하고 있지만 단순한 연역적 논리에 머무르

¹⁹ 심재승, “개혁교회의 성경관”, 『개혁신학』 18 (2005): 321.

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고 단절된 교리로 전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감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계시 역사와 그것의 이해에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성경의 이해를 가져다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현장과 접목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소위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한 법에 지나지 않거나 추론으로부터 획득된 원리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를 띠고서 인간의 현실적 경험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살아 있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가 단순히 고정되어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죽은 글자가 아니라 오늘날 인간들에게 실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2. 성경의 영감성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활동의 결과물로서 신적인 기원을 지닌다. 이처럼 신적 기원을 지닌 성경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신적 기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가 성경의 ‘영감론’이다. 그렇다면 본장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주셨는지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을 규명하는 일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감관이 성경 무오에 관한 논의와 동심원적 관계에 있으므로, 그것이 곧바로 성경의 권위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의 영감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을 올바르게 밝혀내는 작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 성경관을 이해하는 일에 핵심 키워드(Key Word) 역할을 함으로 매우 신중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첫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

는 ‘전통’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의 원리를 주장한다. 이 신앙고백에 의하면, “모든 시대를 걸쳐서 순수하게 보존되어온 신구약의 희랍어와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직접적으로 받은 본문”이다.²⁰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영감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책에서 성경의 영감성의 특성으로 ‘유기적(organic)’, ‘기계적(mecanical)’ 그리고 ‘동력적(dynamical)’ 영감(inspiration)으로 구분해서 소개하면서,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²¹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에서 성경의 영감의 특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칼빈을 비롯한 정통 개혁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과, 전체 내용을 맥락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기적’ 영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²²

칼빈에게 있어서도 영감의 특성으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단순히 성령께서 불러준 내용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반영하여 기록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미 건조한 관념이나 사변으로 소개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²⁰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이 정경이라고 주장하는 외경은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다.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경의 일부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다. 또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작과 다르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WCF, 1항 3절)

²¹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I*, 권수경/이상원 역, 『조직신학(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162-65.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란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 즉 그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단어, 어법과 문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말한다.

²² 이에 대해 심재승 박사는 성경을 원어로 연구해보면 유기적 영감설이 자명해짐을 지적한다: “성경 기록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소수 기계적 영감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성경을 원어로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기적 영감의 증거들을 놓치지 않는다” (심재승, “개혁교회의 성경관”, 327).

적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현실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사실은 그의 간단한 진술,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나왔다(*hominum ministerio, ab ipsissimo Deo ore ad nos fluxisse*)”는 명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²³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마치 의식 없는 로봇이 작동하듯,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에 비인격적 존재로서 기용되어 기계적인 응답을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의 권위”에서 밝혔듯이, 이원적 차원의 성격, 즉 신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이 본 장의 주제 “성경의 영감”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최홍석 박사가 잘 요약해서 소개해 준다.

이원적 차원의 성격이란, 성경이 첫째, 신적인 말씀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신언(神言)이며, 둘째, 그 말씀의 전달 방법이 인간의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차원에서 계시의 기관(器官)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이다 …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의 이원성을 지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두 차원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²⁴

이것은 성경의 세계가 역사성과 초역사성, 시간성과 영원성, 유한적인 것과 무한적인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이 함께 뒤섞여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초역사적인 것과 영원적인 것을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것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 유기적 영감성이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런 의미를 지닌 유기적 영감성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²³ *Institutes*, I. 7. 5.

²⁴ 최홍석, “칼빈과 성경의 영감”, 『칼빈과 성경』 2 (2008): 20-21.

초월성의 세계는 사유를 통해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세계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어떤 특성을 강화시키는 의미를 띠고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경험의 개념과 더불어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 이런 약함 그 자체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용서 또한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위성과 영감성, 무오성을 지닌 성경의 절대성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비논리성과 비합리성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우리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칼빈의 신학사상을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드러난 성경의 권위와 (유기적)영감성은 두 차원의 세계가 서로 접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경은 신적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인간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인간의 언어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것이 곧 성경의 이중성에 대한 칼빈의 사상이며, 이는 또한 성경의 영감이 기계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 성경 안에서의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독립적 요소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 가운데 어떤 요소들은 신적인 성격의 것들이고, 그와 다른 요소들은 인적인 성격의 것들로 분리될 수 없다. 그에게 성경은 전적으로 신적이며, 또한 전적으로 인적인 셈이다.²⁵

성경의 진리는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지만 인

²⁵ 최홍석, “칼빈과 성경의 영감”, 21-23.

간에게 유익하도록 인간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계시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계시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였다. 성경 기록에 저자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 권위에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유기적 영감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3. 성경의 무오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 성경관의 주요 특징인 완전성과 명료성, 탁월성 그리고 목적성(인간의 구원)을 동반하여 무오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의 고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설득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천상의 것이며, 교리의 효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것과 전체적인 범위(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그것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풍부하게 증거하여 주는 주장들이다. 그런 것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무오한 진리를 완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에 위해 증거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되는 것이다.(WCF, 1항 5절)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무오교리는 앞서 설명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와 영감은 그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경

의 무오교리 사상은 그 근원을 칼빈의 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축자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을 기반으로 무오성까지 나아간다.²⁶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무오성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은 신학자들 간에 심각한 논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19세기말 워필드(B. B. Warfield, 1851-1921)와 브릭스(Charles A. Briggs, 1841-1913) 간의 논쟁이다. 20세기 말에는 우드브릿즈(John B. Woodbridge)와 로저스(Jack B. Rogers) 간의 논쟁으로 다시 쟁점화 된다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제한적인 무오성을 언급한 것인지 규명하는 문제이다. 제한적인 무오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는 역사적 기록이나 과학적 진술과 같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브릭스와 로저스의 주장이다. 반면에 워필드나 우드브릿즈는 성경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음을 변증하였다.²⁷ 워필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은 성경의 무오성을 확실하게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²⁸

이와는 다르게,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또 다른 차원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밀리오리(Daniel L. Migliore)의 견해이다.

성경문자주의적 견해에서 영감은 무오성(infallibility)을 요구한다. 직접적이고 문자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간주한다 ... 근대성이라는 밀러오는 조

²⁶ 이환봉, “칼빈의 성경 권위에 대한 신학적 근거”, 『칼빈의 성경해석과 신학』, 안명준 편 (서울: SFC출판부, 2011), 39-40.

²⁷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Jack B.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 Problem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r American Presbyterian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1966); Jack B. Rogers and K.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 Historical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²⁸ 이호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본 개혁주의 성경관 고찰”, 97.

류에 맞서서 로마 가톨릭이 교황 무오설(papal infallibility, 1870)을 제시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개신교의 교리는 성경 무오설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무오한 교도권(infallible teaching office) 혹은 무오한 성경을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이 자유롭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경의 무오성을 고집하는 것은 기독교적 확신의 참된 토대를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²⁹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면 성경에 본질적으로 스며있는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시의 적절성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 진다. 그의 다음의 문장을 보면 성경의 무오성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확실해 진다. “단순히 성경의 글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된다는 모호한 확증 때문에 이런 식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동일시는 성경의 모든 텍스트 각각의 중요성을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다.”³⁰ 이렇듯,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도 정통적으로 견지해온 성경의 무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재해석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삼는 정통 개혁주의는 성경의 무오성을 말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인 의미에서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구원을 위해 필요 충분하다는 점과 오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경 영감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와 부분, 형식과 내용, 모두가 오류가 없고, 잘못 인도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를 성경이 주장하는 것, 그 이하는 물론, 그 이상의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²⁹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100.

³⁰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100.

4. 성경의 정경성(正經性)과 해석

앞에서 성경의 권위와 영감, 무오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기반으로 하여 칼빈의 신학사상에서 나타난 성경관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이제 성경관의 마지막 주제로서 성경의 정경성과 함께 성경해석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장에서 성경의 정경성과 해석을 함께 결부시키는 이유는 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원리가 이제 자세히 드러날 것이다.

1) 정경성

성경의 정경성 역시 앞서 피력한 성경의 권위, 영감, 무오교리의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다. 즉 성경의 권위와 영감, 무오성, 정경성은 각각 분리된 채 독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 내지는 동심원적 관계로 서로 엮여져 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정경성에 대한 ‘인식(*cognitio*)’,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은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되도록 주어진 성경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교회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정경으로써 성경의 근거는 교회적 수용과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정경성을 교도권(敎導權)을 가진 교회가 결정한다.

성경의 정경성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정경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는 것과, 이런 사실의 진리

성의 인식을 위한 기준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증언에서 성경의 정경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복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의 증거나 교회의 증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저자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에 더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즉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고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설득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천상의 것이며, 교리의 효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것과 전체적인 범위(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보여 주는 것,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그것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풍부하게 증거 하여주는 주장들이다.(WCF, 1항 5절)

이렇게 성경의 외적이고 문헌적인 탁월성과 완전성을 지닌 성경의 정경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발견된다. 교회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거 한다. 성경이 정경으로서의 기준은 다른 교회적 권위들과 구분 짓는 성령의 내적 증언과 증거를 통해 확립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성경의 정경성의 인식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은 교회적 증거도 아니요 성경의 문헌적인 고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의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이다.³¹

이와 상응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³¹ Jan Rohl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Von Zürich bis Barmen*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1987), 45-46.

담겨 있다. “그런 것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무오한 진리를 완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에 의해 증거 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서 찾는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내적 확신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말씀으로서 성경은 성령의 증거가 오로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에 의해’ 일어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성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영향 하에서만 명백해 진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할은 성경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제한되어 이루어진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서가 아니라 성경과 함께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다만 간접적으로 역사한다는 말이다.³² 물론 그런 주장이 성령이 말씀의 속박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해석의 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앞서 논한 성경의 정경성과 더불어 해석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한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뜻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하여 연구되고 알아져야 한다.”(WCF, 1항 9절)

물론 성경해석에 대한 이런 신앙고백서의 진술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상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함으로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 6절과 7절에서 밝힌바 있듯이,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과 연결되어 의미하는 말이다. 즉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구원에 필요

³² Rohl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Von Zürich bis Barmen*, 46.

한 충분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점은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불분명하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곧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근본적인 원리이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타난 성경해석의 이런 원리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면 칼빈의 성경해석학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해석학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칼빈에 있어서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다.³³ 이 말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를 조명하는 것을 뜻한다.

칼빈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원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 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근원적인 샘(주체)은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in nobis)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나 활동이 중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오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끌림을 당하는, 즉 타율적 이성과 오성으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인간의 자율적 판단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읽는 독자들 역시 이성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는, 소위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이다. 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은 성경 해석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의미한다.

³³ Benjamin Breckinredge Warfield, "John Calvin the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ed., Samuel G. Cra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6), 484-85. 고헌필, "성경 해석자로서 성령의 내적 조명", 14에서 재인용.

이에 덧붙여, 고광필 박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인식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준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은 해석자의 이성을 깨우치고, 마음에 확신을 주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들을 귀를 갖게 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한다는 말이다. 분명히 이성, 마음, 눈, 귀는 동일한 것이 아닌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마음과 이성, 귀, 눈의 깨우침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듯, 성령의 조명은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고, 부패된 마음을 회복하고, 들을 귀를 갖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한다. 따라서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은 필수적이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마음과 이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령의 내적 조명’의 개념과 기능이 보다 분명해 진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주요 활동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다.³⁴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조명에 의한 성경해석이 인식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고광필 박사는 두 가지 견해, 즉 ‘인지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잘 설명한다.

인지적인 측면은 이성적인 측면을 말하며, 의지적인 측면은 마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에 있어서 이성의 조명은 성경 말씀의 인지적인 이해에 강조를 두는 반면, 마음의 조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의지적인 측면에 강조를 둔다 … 칼빈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은 인지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 모두 있다. 즉, 칼빈의 견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

³⁴ 고광필, “성경 해석자로서 성령의 내적 조명”, 15-16. ‘마음’을 일컫는 헬라어로 ‘카르디아’(καρδία)와 ‘누스’(νοῦς), 두 단어가 있다. ‘카르디아’는 영어의 ‘heart’에 해당되는데, 이는 인간의 인격의 3대 요소, 즉 지·정·의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샘을 지칭한다. 또한 철학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되며 영어로 ‘mind’ 혹은 ‘reason’을 의미하는 ‘누스’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생각하는 힘”으로서 인간의 이성 내지는 오성을 뜻하는 단어이다.

명을 받은 이성으로 문법적 역사적인 의미를 습득함은 물론, 그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마음의 받아들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칼빈에 있어서 성경해석은 성령의 조명이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고 마음에 확신을 주어 텍스트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완성된다.³⁵

이렇듯 고광필 박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자칫 추상적이며 경직된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지적하며, 그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나아가 우리의 현실적 삶의 적용까지 이어간다.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인한 성경해석은 사유를 통해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해석된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실천적 영역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 바로 이런 점이 칼빈의 성경해석학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진술하는 성경해석학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성경의 권위와 영감, 무오성에 스며 있는 이원적 성격, 즉 신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피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 뿐만 아니라 전체 개혁주의 성경관의 특징을 이루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유기적)영감, 정확무오성, 정경성과 해석학적 원리에 들어 있는 진정한 의미는 정태적(靜態的)이거나 경직된 채, 절대적 권위에만 호소하는 교리 지향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펼치는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데 있다.

³⁵ 고광필, “성경 해석자로서 성령의 내적 조명”, 21-23.

I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현대적 의의와 적용을 위한 결론적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관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성경관의 바른 정립이 성경 밖의 어떤 논리나 증명에 달려 있지 않고 성경 자체의 주장과 성령의 내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 성경관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순한 고백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성경관의 주요 특징인 성경의 권위, 영감, 무오성과 정경성 그리고 성경의 해석이라는 전체면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성경관을 유지하는 것은 개혁교회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권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에만 치중하다보면 그것이 신학의 다른 부분과 단절되고 경직화되는 위험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를 옳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경관이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성경관에 관한 바른 연구는 성경의 신성(하나님의 말씀)과 인성(인간의 언어로 기록됨)이라는 두 가지 시각 사이에서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성에 편중되어 강조될 때 성경이 쓰여진 상황의 역사성이 간과되고, 반대로 성경의 인성이 강조될 때 하나님의 계시라는 면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역사 속에서 왜곡 없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 이 두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의 이 두 시각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둘 다 성경의 정경성과 권위를 세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

서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의 주된 이유이다. 또한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앙고백은 단순한 신앙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신앙고백이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날마다 시대마다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과 진리를 해석자가 처한 현실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구약과 신약시대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 이해를 신앙고백과 함께 폭 넓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고백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태동되었다. 때문에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신앙고백서를 비역사적이거나 단순한 의미에서 초역사적인 문서로 받아들인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사람의 통찰력은 성령의 조명에 따라 그에 대한 신앙 내용을 표현하며 전달하는 교회의 능력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신앙고백서는 역사적이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과 상황 속에서 구체적이며 실존적으로 재조명해보며 적용해야 하는 신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그런 만큼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일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고 있는 장로교회의 발흥과 전파는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전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정통 장로교회에는 성경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부요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신

양고백서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이런 전통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참된 장로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된 장로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 근거를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신앙고백서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잃어버린 역사적 장로교회의 전통과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 보았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기초가 될 신앙고백이 과거에 있었던 신조들의 집대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신조로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현재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며, 현대적인 언어 감각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제시할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의미 있고 활력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현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의한 신앙고백이어야 한다.

〈Abstract〉

The Modern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Reformed Creeds

Ho-Koang Jang

(Anyang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This study has been mainly proposed to elucidate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Reformed Creeds focused 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which makes up the backbone of Reformed theology, especially on the view of Scriptur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in the manifestation of Reformed theology have been built on the confession of faith, especially 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refore, the Presbyterian Churches have had a lot of attention to writing objective and biblical confession of faith. And they have used it as an important milestone to go back to the Word of God. And confessions of faith, which promulgated in the name of churches, became the standards of life for believers. In that sense, the Presbyterian Churches, which share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are lining up with propagation of confessions of faith. Thus the confessions of faith were valuable and precious for the historical orthodox Presbyterian Churches. Unfortunately, however,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are losing this tradition more and more. So, this study examined the basis why Reformed confessions of faith were treated importantly in the Presbyterian Churches through the view of Scripture on Westminster Confession hoping to recover the Presbyterian Churches truly. And it also has been the opportunity to rethink lost history and contents in Presbyterian Churches by considering the modern meaning of the Confession of Fai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confession of faith in Reformed tradition' and the meaning of the view of Scripture in the confessions of faith in the Introduction.

The body part consists of ‘authority of the Scriptur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 ‘infallibility’, and ‘interpretation of Canon of the Scripture’ which the view of the Scripture i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s divided into. And it is shown in the body that these four main characteristics of the view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are not separated but related organically and in concentric circle. The bible only can be understood in that organic context.

Above all,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Creeds which summarize the Word of God and God’s word need realistic dialogu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constantly in every new era.

We need to look the truth of historic Christianity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and until today with the lens of the confessions. So the churches can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fast-paced society and, to be sure, be frontiers to lead society out well.

Key words : Creeds, Bible, Authority, Inspiration, Canon, Infallibility

〈참고 문헌〉

-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 박해경. 『신학의 두 기둥, 성경과 신조』.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 심재승. “개혁교회의 성경관”, 『개혁신학』 18 (2005): 319-53.
-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이호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본 개혁주의 성경관 고찰”. 『역사신학논총』 16 (2008): 78-103.
- 이환봉. “칼빈의 성경 권위에 대한 신학적 근거”. 『칼빈의 성경해석과 신학』. 서울: SFC출판부, 2011: 34-49.

- 조병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박윤선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 보수주의의 뿌리』.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편.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5: 35-67.
- 최홍석. "칼빈과 성경의 영감". 『칼빈과 성경』 2 (2008): 13-3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I. 권수경/이상원 역. 『조직신학(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Jacobs, Paul.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im Grundzüge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59.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Rogers, Jack B.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 Problem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r American Presbyterian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1966.
- _____ and R.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 Historical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 Rohls, Jan.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Von Zürich bis Barmen*.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1987.
- Schwarz, Hans. "Glaubensbekenntnis."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13. Edited by Gerhard Müller.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4: 437-41.
- Selderhuis, Herman J. *Gott in der Mitte*. 장호광 역. 『중심에 계신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Shaff, P. *The Creeds of Christendom I: The History of Creeds*. Grand Rapid: Baker Books, 1996.
- Warfield, Benjamin Breckinredge. "John Calvin the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Edited by Samuel G. Cra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6: 482-95.